

Ⅱ. 해협권 뉴스

1.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2001년도 정기총회

2. 각 지역 뉴스

- 1) 후쿠오카현
- 2) 사가현
- 3) 나가사키현
- 4) 부산광역시
- 5) 광주·전라남도
- 6) 경상남도
- 7) 제주도

3. 제 10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

1.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2001년도 정기총회

2001년 9월 13, 14일 이틀간에 걸쳐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2001년도 정기 총회가 한일 연구기관 대표자 및 관계자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키타큐슈시의 국제 동아시아 연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국제 동아시아연구센터의 주관하에 1일째 총회에서는 2000년도의 사업보고, 임원 개선, 2001년도 사업계획, 차기 총회 개최지 결정 등에 관해 협의를 보았다. 총회에 이어 외무성 경제국 개발도상지역 과장 미야가와 마키오 씨를 강사로 초빙하여 「일본 싱가포르 경제연대협정 교섭의 경위와 문제점 -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영향」이란 제목으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틀째 오전에는 관광을 테마로 2000년도 연구보고회가 개최되어 각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토의와 의견교환이 전개되었다. 또 오후에는 2001년 7월 4일부터 11월 4일에 걸쳐 개최된 재팬 엑스포 키타큐슈 박람회 2001을 시찰하고 키타큐슈시에 축적되어 온 제조업 기술과 공해를 극복해 온 환경기술을 기반으로 아시아와 함께 발전해 가는 키타큐슈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2001년도 총회 및 연구 보고회 출석자 명단

구분	연구기관	직 책	성 명
일본	아시아 태평양센터	전무이사	岩瀬 信一郎 Iwase Shinichiro
		연구교류 제1계장	志田原 紳吉 Shidahara Nobuyoshi
		연구교류 제1계	坂本 典子 Sakamoto Noriko
		후쿠오카대학 경제학부 교수	斉藤 参郎 Saito Saburo
		일본 문리대학 강사	本村 裕之 Motomura Hiroyuki
	큐슈 경제조사협회	이사장	今村 昭夫 Imamura Akio
		연구원	平田 エマ Hirata Ema
	사가 경제조사협회	전무이사	正嶋 輝彦 Shojima Teruhiko
		사무국장	北村 一義 Kitamura Kazuyoshi
		연구원	副島 尚史 Soejima Naofumi
	나가사키 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사장	安達 洋平 Adachi Youhei
		주임 연구원	中村 政博 Nakamura Masahiro
	신와 경제문화연구소	이사	長谷川 恒 Hasegawa Hisashi
		주임 연구원	島浦 誠 Shimaura Makoto
	국제 동아시아 연구센터	소장	市村 真一 Ichimura Shinichi
		객원연구원 (나가사키 국제대학 부교수)	河村 誠治 Kawamura Seiji
		상급 연구원	野村 淳一 Nomura Junichi
		사무국장	吉田 憲正 Yoshida Kazumasa
		사무국 차장	水上 良史 Mizukami Yoshifumi
		기획계장	出水 佐織 Demizu Saori
		기획주임	深川 恵 Fukagawa Megumi
한국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林 正德 Lim, Jung Duk
		연구기획실장	黃 永佑 Hwang, Young Woo
		선임연구위원	琴 性根 Keum, Sung Keun
		기획계원	金 英蘭 Kim, Young Rhan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원장	宋 彦種 Song, Eon Jong
		수석연구원	金 在哲 Kim, Jae Chul
		선임연구원	宋 泰鉀 Song, Tae Gab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成 泰鉉 Sung, Tae Hyun
		책임연구원	孫 相洛 Son, Sang Rag
		책임연구원	黃 仁植 Hwang, In Sik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李 文教 Lee, Moon Kyo
		책임연구원	朴 元培 Park, Won Bae
		연구원	鄭 丞勛 Chung, Seung Hoon

연구보고회 프로그램

연구보고 I

(진행) 국제동아시아연구소 상급연구원 **노무라 준이치**

(보고)

- ① 제주문화와 관광축제 진단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정승훈**
- ② 한일해협권지역에 있어서의 테마 파크의 현상과 경제 파급효과 /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송태갑**
- ③ 국제도시 관광 쇼핑행동의 기초적 조사연구 / 아시아 태평양센터 **사이토오 사부로오**
(후쿠오카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코멘트 / 의견 등) 신와경제문화연구소

(토론) 전체 참가

연구보고 II

(진행)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 **이문교**

(보고)

- ① 북부 큐슈에 있어서의 테마 파크의 현상과 경제 파급효과 / 국제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카와무라 세이지**(나가사키국제대학 인간사회학부 부교수)
- ② 일해협권지역 관광교류의 현상과 확대 가능성 /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락**
(나가사키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 **나카무라 마사히로**)

(코멘트 / 의견 등) 부산발전연구원

(토론) 전체 참가



2. 각 지역 뉴스

1) 후쿠오카현

(1) 일한교류의 활력소가 될 스포츠교류

2002년 스포츠의 화제는 축구 월드컵 뿐만 아니다. 8월 23일~9월 1일까지 기타큐슈시에서 세계각국으로부터 남자 12개팀, 여자 8개팀, 모두 320명의 선수단이 모이는 「2002년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대회·기타큐슈(기타큐슈 골드컵)」이 개최 된다. 한국팀은 2001년 11월에 기타큐슈시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남자 예선대회」에서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기타큐슈팀과 한국팀은 지금까지 친선시합을 통해 교류를 활발히 해왔다. 양팀의 본선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기타큐슈시는 2002년, 일한 정기여객선(항로: 울산 및 부산—코쿠라)의 취항, 신기타큐슈 공항 개항(2005년)에 앞서 차터편사업(한국 항공기를 사용)을 예정하고 있다. 또 동아시아 10개 도시의 시장들에 의한 「동아시아(환황해) 도시회의」가 한국의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등 북부 큐슈와 한국과의 연대·교류는 더욱 폭 넓고 심도 있게 진전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2) 「타라소 후쿠오카」 오픈

2002년 4월1일,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커뮤니티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민간 기업 운영 공공 시설 「타라소 후쿠오카」가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하코자키에 오픈 했다.

이 「타라소 후쿠오카」는 약 200군데의 제트 노즐과 수중 워킹 코스를 갖춘 곳으로 온해수 수중 운동 수영장을 중심으로 하여 몸에 부담이 적은 다양한 수중운동 프로그램이 갖추어진 전용 수영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 별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서부터 본격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시설과 이웃한 「체험 교류관」에는 일본식의 방과 자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나 지역사회의 교류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다.

「타라소 후쿠오카」는 2001년 4월에 가동을 시작한 후쿠오카시의 청소공장 「클린 파크 린카이」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전기)을 유효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이 시설은 후쿠오카시가 PFI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정비한 것으로서 민간기업이 시설을 건설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자로서 15년간 운영한다. 그 간 후쿠오카시는 공공 서비스 내용과 질에 관해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15년 후에 이 시설은 후쿠오카시에 양도된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란 공공시설 등의 설계·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한꺼번에 민간기업에 맡겨 자금조달, 기술, 운영 등 민간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사업비 삭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질이 높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1999년에 법으로 제정된 새로운 공공시설의 정비방법이다.

(3) 아가노야키(아가노 도자기) 400년제 개최

아가노야키는 아카이케마치 후쿠치산 기슭에 29개 이상의 도자기 제작 가마가 있는 후쿠오카현

을 대표하는 도자기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와서 귀화를 한 이조의 도공 존재(후일 우에노 키조오 타카쿠니)와 센노 리큐우(일본 다도의 창시자)의 제자로서 와비 차의 정신을 계승한 다도인이자 영주인 부젠 번주 호소카와 타다오키에 의해 가마가 축조된 것이 1602년이였다. 타다오키와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은 와비 차의 정신을 질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여 에도시대에는 토쿠가와가의 다기를 제작하기 위한 가마 온슈 7개 가마로 선정되는 등 많은 다도인이 애용해 왔다.

2002년은 아가노야키 가마가 축조된지 꼭 400년이 되는 해이다. 우연히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기도 하여 일본의 다도인과 한국의 도공에 의해 창조된 아가노야키는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카이케 마치에서는 2002년 9월에 「아가노 고장 체험 교류관(가칭)」을 개관한다. 그리고 9월 26일~10월 1일에는 「아가노야키 400년제」가 개최된다. 초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을 모은 「아가노야키 전」(키타큐슈시에서 개최), 기념강연, 도자기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2) 사가현

(1) 일한 교류센터 개설

일본과 한국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일한 교류센터」 설립식이 5월2일, 히가시 마츠우라군 친제 이마치에 있는 현립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거행되었다. 한국과의 교류 활동에 관한 상담이나 한일 교류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 개강, 한국문화 정보의 수집 제공 등, 종래 박물관 업무의 테두리를 넘은 활동이 주목된다.

설립식에는 이모토 지사를 비롯하여 지역의 나고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약 90명이 참석하였다. 후쿠오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이남교 교육담당 영사는 축사를 통해 「이 센터가 한일 우호의 다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년 8월, 한국에서 홈 스테이를 한 나고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6학년 요코야마 케이스케 군과 사카이 켄고 군은 인사에서 「나고야성의 역사를 통해 과거 한국과의 사이에 슬픈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다. 두 나라의 멋진 미래를 우리들 손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하였다.

박물관은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상대측과 연락을 취하거나 한국인 국제 교류원이 한국어와 문화, 생활습관을 소개하는 「출장 강좌」를 개최해 왔다. 이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확대해 가는 일을 하게 된다. 업무는 현 직원 15명이 담당한다.

(2001년 5월3일 사가신문)

(2) 「교류의 날개(후레이아이노 츠바사)」 한국으로

「화기애애한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정말 가길 잘했다」고 일본 역사교과서문제로 한일 교류사업이 속속 중지되고 있는 가운데 현의 여성 해외파견사업 「교류의 날개」 단장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이모토 지사는 방한의 감상을 이렇게 말했다.

국가간의 문제와는 달리 시민 차원의 교류는 지금까지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4박 5일 동안, 서울, 경주시, 제주도를 둘러 보면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다.

제주도 지사님과의 회담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 주도의 교과서가 현내에서 사용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며 한국발신 뉴스를 보도하였다.

시민 교류를 계속한다는 약속이 무엇보다 귀중한 선물이 된 것이다.

(2001년 8월4일 사가신문)

3) 나가사키현

(1)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규모 축소

1,400ha의 농경지 조성 및 고조와 홍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부터 시작된 「국영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총사업비 약 2,500억엔)은 현재 85%까지 진척되었으나 아리아케 해 양식 김의 흉작이 이사하야만 간척공사 때문이라는 이유로 2001년 1월부터 아리아케해 연안 김 어업자들이 「국영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해상 데모나 공사현장 입구 폐쇄 등 항의 활동을 전개하여 공사는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김 흉작 등에 대해 중앙정부(농업수산성)는 김 흉작문제의 조사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인 규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3자위원회의 사업 재평가 제안을 받아 10월에는 국영 이사하야만 간척 사업을 농경지 조성 간척부분, 약 700ha 만으로 그치는 사업 축소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나가사키현은 본격적인 공사 재개를 조건으로 조수방지 제방 배수문의 개방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건하에 재검토안 수용하여 12월에 표명, 2월부터 11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되었다.

(2) 스포츠에서 대활약

고등학생이 스포츠 분야에서 전국을 속속 제패하는 등 현민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고등학교 축구는 쿠니미 고등학교가 1월에 열린 전국 고등학교 선수권 대회, 9월 전일본 유스선수권에서 각기 우승하였다. 스모우(일본식 씨름)에서는 이사하야 농업 고등학교가 8월 전국대회에서 우승, 핸드볼 남자에서 케이호 고등학교가 우승, 10월의 전국체전에서 핸드볼 남자, 배구 여자가 우승하였다. 또 12월 고등학교 역전 여자부문에서 이사하야 고등학교가 우승을 했다. 또 사회인 야구 일본선수권에서 미즈비시중공업 나가사키가 우승을 했고, 이 밖에도 전국 상위권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진 한 해로서 나가사키현의 스포츠 진흥을 위한 노력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3) 큐슈 마지막 탄광 「이케시마 탄광」 폐쇄

큐슈 마지막 탄광으로서 채굴을 계속해 왔던 나가사키현 소토우미마치의 「이케시마 탄광」이 11월 29일에 폐산을 했다. 1950년대에는 나가사키현과 큐슈 경제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탄광도 60년대 이후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혁명, 수입석탄의 증가, 에너지의 다양화에 따라 속속 폐

산하게 되어 마지막 남은 것이 이케시마 탄광이었다. 그러나 갱내 화재로 인한 채굴조건 악화, 중앙정부의 국내 탄광 지원책 중단 등으로 인해 탄광의 조업을 단념하고 42년이란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탄광의 폐산으로 인해 약 1,300명(하청 기업을 포함)이 직업을 잃고 소토우미마치의 기간산업도 사라지게 되었다.

(4)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관광 리조트

계속되고 있는 불황에다 대도시권의 대형 관광시설 개업(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도쿄 디즈니시)등으로 인해 나가사키현의 관광 리조트업계의 경영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우스 텐보스」(사세보시)가 경영 재건의 일환으로서 이 회사의 초기 시설인 「나가사키 네덜란드 촌」(세이히마치)을 10월에 문을 닫고 이오지마마치의 리조트시설, 호텔 에스파냐를 운영하는 제3섹터 「이오지마 스포츠 리조트 개발」이 경영난으로 인해 12월에 회사 해산을 결정했다.

한편 나가사키시에서는 「나가사키 펭귄 수족관」이 2001년 4월에 오픈했다. 1997년에 민영 「나가사키 수족관」이 영업 부진으로 폐관했던 것을 지역 주민의 운동으로 나가사키시가 40억엔을 들여 건설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제1을 자랑하는 7개 종류, 약 120마리의 펭귄을 중심으로 약 180종류, 약 9,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초년도 입장자 수는 목표 20만명을 넘어 9개월간에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4) 부산광역시

(1) 센텀시티개발

센텀시티는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이상적인 디지털시티를 만드는 것이다. 하이테크와 영화산업의 육성, 국제관광허브의 조성, 동북아에서의 비즈니스 문화교류의 촉진, 최첨단 거주환경의 제공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세계 최첨단 정보·통신·영상·업무 거점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센텀시티는 해운대에 위치한 1,172,191㎡에 여러 개성적이고 독특한 존으로 나누어 조성된다. 전시컨벤션지구, 디지털 미디어지구, 도심 엔터테인먼트지구, 국제업무지구, 복합업무지구, 테마파크, 수변공간으로 이루어진다. 각 지구는 독립적인 특징과 특화된 역할을 유지하도록 기능적으로 잘 연계할 계획이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8,93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 동부산관광종합단지

동부산관광종합단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대 총면적 7,623,000㎡에 환경친화적이고, 역사, 문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가족지향 사계절 장기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부산관광종합단지는 대변/시랑지구, 기장지구, 일광지구로 나누어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한다. 대변/시랑지구에는 테마파크, 워트파크, 골프장, 리조트 호텔, 임대형 휴양시설, 가족 리조트, 국제문화촌, 해양유스호텔 등, 기장지구에는 골프장, 편의시설, 아트센터, 실버타운, 일광지구에는

골프장,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조 4,16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1단계(1999~2006년)는 동부산 관광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보상,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조경공사, 전기·통신공사)이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테마파크, 시티워크, 워터파크, Pleasure Harbor 등이 조성된다. 2단계(2007~2011년)에는 제1단계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투자시기와 규모를 조정한다.

(3) 서부산유통단지

서부산유통단지는 서부산권개발의 하나로 서부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지역간 화물의 거점기지로 개발토록 하며, 물류와 상류 및 지원기능을 고루 갖춘 부산 및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 유통단지로서 개발하려는 것이다.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내 산재한 기존 유통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시설별 이용행태, 이용계층 등을 감안한 단지의 전문화를 유도한다. 상호 연계된 기능간의 복합화를 추구하여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지개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개발을 도모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대 896,000m²에 2007년까지 총사업비 2,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03년 7월부터 서부산유통단지의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5) 광주·전라남도

(1) 광주컨벤션센터 건립

광주컨벤션센터가 상무 신도심에 건립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전시컨벤션센터건립 사업비 30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서구 치평동의 부지 53,302m²에 2003년까지 연건평 16,530m² 규모의 2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 549억 정도가 소요되나 부지는 시비로 이미 매입해 국비 전액을 건축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4~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상무지구는 광주공항, 지하철역 등과 접근성이 좋아 교통이 편리하고, 향후 시설확장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시는 밝히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지난 98년 권역별 국제무역전시장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 호남지역은 광주 상무지구가 최적지임을 결정한 바 있다.

(2) 남악 신도시 교통·환경·정보 시범도시로 조성

전남도청이 이전하는 무안군 남악 신도시가 교통·환경·정보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전남도는 남악 신도시의 장점과 특성을 고려해 교통, 환경생태, 정보통신분야 등 3개 분야 시범도시로 조성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시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범도시 지정제는 건설교통부가 향후 도시개발 정책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사업비의 50%까지 국비로 지원되어 신도시 건설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미래형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고흥 우주센터 연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전남 고흥 우주센터 건립사업이 오는 4월 토목공사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며, 이 사업의 시행으로 8,0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의 '고흥 우주센터 연계 지역발전계획'의 결과에 따르면, 3단계(2002~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로 추진될 우주센터의 지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연계사업 부문 4,014억원, 관광부문 4,130억원 등 총 8,144억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고용창출효과는 연계사업 부문 5,547명, 관광부문 6,446명 등 총 11,993명으로 추산됐다. 한편 고흥 우주센터를 찾는 관광객은 2005년 한해에만 138만여명, 2010년 163만여명, 2015년 207만여명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 우주센터 건설이 이뤄지면 독자적인 발사장 건설로 항공우주관련 기술축적의 기회를 보유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조기확충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며, 고흥 지역의 장소마케팅 효과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방문자 센터, 스페이스캠프 건설 등 직접관련사업과 농어촌체험 관광지 조성, 해양수족관 설립, 우주테마공원 조성, 민박사업, 천문대 건설, 해양레포츠형 관광단지 조성, 실버타운 건설 등 관광관련 간접 연관사업이 제시됐다.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일대 150만평의 부지에 총 3,473억원을 들여 건립될 우주센터는 부지매입을 마치고 과학의 날인 4월21일에 착공하여 1단계 사업이 끝나는 2005년 11월 국내 최초의 과학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6) 경상남도

(1)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통하여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을 광역자치단체가 인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광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각 도의 종합계획이 국토종합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적 연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경남의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연도 2020년의 장기계획이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21세기 세계환경의 변화, 제4차 국토계획의 수립, 통일·개방사회의 보편화와 동북아 중심으로 세계중심의 이동에 대비한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경남비전의 실천이며 광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계획의 성격으로는 지역발전의 실천전략을 각 시·군의 발전계획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발전을 위한 지침이 될 것이다. 또한 획일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각 부문 및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마산밸리(Masan Vally) 조성 추진

경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 창업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중소기업체의 증가에 있어서 경남은 지난 10년동안 약 200% 증가를 보여 전국평균 115%에 비해 중소기업 창업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는 벤처기업은 2000년 7월 말 현재 경남에는 279개로 전국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마산밸리는 마산시 중리지역에 있는 GITEC(경남정보기술센터)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및 로봇·자동화기기·전자·통신부품소재·환경산업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마산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대학과 연구소의 교육기능·연구기능 그리고 기술이전기능을 기업의 생산기능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의 지역혁신의 모델케이스로서 기대되며, 벤처기업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벤처밸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과 함께 첨단산업의 집적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그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집적단지의 조성붐이 일고 있으며, 국내도 테헤란밸리와 더불어 대덕밸리·홍릉밸리·천안밸리 등이 조성중에 있다. 지방도시의 경우,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서울의 테헤란밸리와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벤처기업이 집적된 곳을 발굴하여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벤처기업 집적단지로 기투자되고 있는 마산의 경남정보기술센터(GITEC)를 마산밸리로 확대 조성하고, 특화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비 출연의 벤처빌딩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7) 제주도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공포 서명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2월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공포 서명식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제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그 혜택이 제주도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제주도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지리적 이점과 수려한 자연경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못지 않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지난 1998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선언한 후 많은 토론 끝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제주도의 앞날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축복한 것”이라며 “오늘은 제주도가 21세기에 일대 도약하는 출발의 날이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큰 축복이 되는 획기적인 날”이라며 감회를 피력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1963년부터 무려 38년이 걸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완성됐다”면서 “법집행 실무책임자로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국가전체의 경제붐을 일으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 제주월드컵경기장 완공

1999년 2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철야작업을 계속해온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의 하나라는 찬사 속에 2001년

11월 30일 제주월드컵 경기장이 완공되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는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의 염원 속에 한치의 안전사고 없이 2년여에 걸친 완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담은 또 하나의 상징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4만2천2백56명을 수용하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은 도내 유일의 축구 전용경기장으로써 월드컵 이후 보조경기장들과 함께 전지훈련의 요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과 범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주변 경관면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장 20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불리고 있다.

제주 고유의 오름과 전통배인 태우 그리고 올레를 형상화한 월드컵경기장은 디자인 면에서도 독특함을 자랑하고 있으며 단순한 축구경기장을 넘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 가운데 축구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던 바람의 영향을 줄이도록 설계된 것으로 FIFA관계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용은 모두 1천1백2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나려는 서귀포시의 당초 목적 달성에 훌륭한 기회이며 이를 활용한 홍보전략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제주4·3평화공원은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4·3의 역사적 사실 보존 및 교훈을 후세에 전달하며, 도민화합과 인권신장, 민주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원의 이념 : 상생의 바람(Winds of SangSaeng)
- ② 공원의 성격 : 기록의 공간, 상생의 성지, 위령·추념의 공간, 복합문화공간
- ③ 도입 기능
 - 위령시설물 : 기념조형물, 추념제단, 추모광장, 묘비·묘석(각명비군),
 - 건축시설물 : 4·3역사관, 4·3문화센터
기타 건축물(방문자 센터 및 화장실, 매점 등 편의 시설)
 - 공간 구성 : 초대의 장, 인식의 장, 사색의 장, 추념의 장, 기원의 장, 참여의 장 체험 공간, 수변 공간, 연대 공간, 휴식 공간
- ④ 각명비 및 행불인을 위한 묘역 등 위령공간 확보
- ⑤ 공원의 관리 운영은 공원 조성 단계에서는 “제주4·3사업단”, “연구소”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공원조성 후에는 가칭 “재단법인 4·3평화센터” 설립, 공원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며, 센터 내 공원관리운영본부와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⑥ 4·3공원의 조성과 함께 4·3유적지 전수 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 4·3피해로 잃어버린 마을의 지도 작성과 기록비 건립, 4·3피해 현장에 소공원 조성 및 위령공간 조성, 4·3주간 및 4·3추념일 제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3. 제 10회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

제10회 21세기 최초의 일한 해협연안 시, 도, 현지사 교류회의가 2001년 9월 5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해협멧세 시모노세키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4개현 지사, 한국으로부터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3개도 지사 및 부산광역시 부시장이 출석하였으며 일반 현민 40명도 방청 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각 지사가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제교류시책 소개, 공동 교류사업 보고 및 새로운 사업제안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 일반 현민과 한국의 지사와의 의견교환도 있었다. 한국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라디오 청취자회, 복지시설, 대학 서클 및 JC 야마구치현내 4개 단체 대표자가 활동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문화, 복지, 어학, 청소년 등 각 분야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한국의 각 지사로부터는 이들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회의 마지막에는 지사간의 자유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지사들은 오후, 야마구치현 아지스마치에서 개최중인 「야마구치 키타라 박람회」를 시찰하였다. 야마모토 칸사이씨가 연출한 「야마구치 겐키 전설」의 시찰에 이어 국제교류관 경상남도 부스에서는 일한 양국의 지사가 짝이 되어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 「투호」에 도전하는 등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를 즐겼다.

이어 해협 멧세 시모노세키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기자들로부터 많이 나왔다. 양 정부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자유토론 때는 거론되지 않았던 점을 일한 지사가 언급함과 동시에 교과서문제 등 많은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축적해 온 깊은 유대관계와 지역레벨 교류의 계속적 추진의 중요성을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공동성명에서는 바다의 환경미화 캠페인 실시와 기존 공동교류사업의 충실화, 새로운 교류분야의 검토, 다음 부산광역시에서의 지사회의 개최 등에 합의를 보았다.



공 동 성 명

우리는 일본국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및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대표하여 2001년 9월5일, 일본국 야마구치현에서 제10회 한일 해협연안 시, 도, 현 지사회의를 개최하였다.

21세기 첫번째인 이 회의에서는 8개 현, 시, 도의 주요 시책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는 한편 공동 교류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활발한 교류를 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등에 관해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10회를 맞이하는 이 회의의 기본이념인 「주민에게 열린 지사회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사회의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한민국 지사와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사회의의 홈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아울러 홈 페이지 내에 일한교류의 장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지사회의에서는 새로운 세기에 있어서 한일해협권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보다 활발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 지금까지 쌓아 온 8개 시, 도, 현의 돈독한 유대관계와 지역 차원에서의 교류의 지속적인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2. 한일 해협권의 자원인 아름다운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바다의 환경미화에 관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과 같은 사업을 기존 환경기술교류사업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3. 「제주 평화 포럼」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한일 해협연안 8개 시, 도, 현은 인식을 같이 했다.
4. 기존의 공동교류사업에 있어서 민간레벨의 교류가 폭넓게 전개되도록 실무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재평가·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5.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지역 전통공예 교류사업의 연장, 광역관광교류사업의 충실 및 경제계의 참가, 여성·청소년 교류, 환경대책 및 복지분야의 교류 등 새로운 제안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검토과제로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6. 다음 한일 해협연안 시, 도, 현 지사회의는 2002년에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다.

이상으로 우리는 본 지사회의가 한일 지역간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21세기 한일 해협권의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1년 9월 5일

후쿠오카현 지사 麻 生 渡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全 晋
사가현 지사 井 本 勇	전라남도 지사 許 京 萬
나가사키현 지사 金 子 原 二 郎	경상남도 지사 金 嬾 珪
야마구치현 지사 二 井 關 成	제주도 지사 禹 瑾 敏